

# 2025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회의록

일시	2025. 10. 21.(화) 16:00~16:50		장 소	구청 3층 중회의실
참석현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14	12	2	
안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편성 반영 심의·조정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 총 84건 / 1,955,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예산반영 : 42건 / 548,700천원</li> <li>- 2025년도 즉시반영 : 42건 / 1,406,800천원</li> </ul> </li> <li>○ 미반영 사업 : 총 9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사업 현황(별도자료)</li> </ul> </li> </ul>			
기타사항	○ 해당없음			

## □ 회의사진



위원	발언
사회자	<p>(인사.) 자치행정과 구민협력팀장 조석현입니다.</p> <p>부평구 참여예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p> <p>회의시작에 앞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p> <p>공동위원장이신 차준택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민관협의회 이완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고영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이수창 자치문화 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윤재균 도시관리 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그리고 위촉 위원님들 중에서 김대식 분과장님과 박일용 분과장님 두 분은 개인사정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려움.</p> <p>다음은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길옥이 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박종훈 도시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다음은 배석공무원 소개임.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김진옥 예산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p> <p><b>【개회】</b></p> <p>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편성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2025년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먼저, 차준택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차준택 구청장	<p>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완기 위원장님과 분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 받고 지역위원회 심의 및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고 현장 조사까지 다니시면서 어렵게 사업을 추려주신 것 같음. 저희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태인 거는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상황 인 것 같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도 세출요구가</p>

위원	발언
	<p>초과되어 들어온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536억 정도를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시기 조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음. 그래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나 또다른 경로로 다양하게 제안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체감도는 더 높은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봄. 오늘 함께 해 주신 민관협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은 잘 반영될 수 있게 조정·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사회자	<p>다음은 이완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이완기 위원장	<p>안녕하세요. 이완기입니다.</p> <p>2년 동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과 관련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경제환경분과가 안건이 없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경제환경분과까지 반영이 되어서 5개 분과의 안건들이 다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함. 저희들이 지역발전과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 분들이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평구청이 되기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사회자	<p>안건심의에 앞서 조민호 자치행정과장님의 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p>
자치행정과장	<p><b>【제안설명】</b></p> <p>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p> <p>2025년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접수 건수는 총 176건으로, 각 동 지역 위원회를 통해 117건, 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통해 35건, 홈페이지를 통해 23건, 우편 1건이 접수되었음.</p> <p>먼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자료 1페이지 제안사업 총괄 현황임. 제안된 사업 총 176건 중 사업부서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민위원회 각 분과회의를 거쳐, 2025년 즉시반영 사업 42건, 14억 6백8십만원, 2026년도 예산반영 사업 42건, 5억 5천8십3만2천원, 미반영 92건으로 결정되었음. 총 제안건수 176건 중 반영 건수 총 84건으로, 제안건수 대비 반영률은 47.7%임.</p>

위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p>다음은, 2페이지 예산부서 검토 및 조정내역임.</p> <p>2026년 예산반영 사업 중 예산부서 조정사항은 1건으로, 자치문화분과 8번, 삼산2동 자치센터 인바디측정기 설치 사업임. 당초 제안서에는 인바디 장비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비 구입비만 삼산2동 예산에 반영하고, 용지 구입 등 유지관리비용은 주민자치회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장비구입비 3백6십만원만 반영하였음. 조정 결과는 담당부서 및 제안처에도 공유하였음.</p> <p>아울러, 2026년도 예산반영 사업 42건 중 비예산 3건, 중복사업 통합 1건을 제외한 총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위원회 분과장 운영회의 및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p> <p>우선순위 목록을 비롯한 제안사업별 세부내용 및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 책자 및 제안사업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p> <p>이상으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사회자	<p>다음은 이완기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p>
이완기 위원장	<p><b>【개회선언】</b></p> <p>지금부터 「2025년도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14명 중 과반수 이상인 12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p> <p><b>【안건상정】</b></p> <p>오늘 민관협의회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의임.</p> <p>먼저, 오늘의 안건 2026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176건을 상정함.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자료 2페이지부터 사업별 분과위원회와 예산부서 사업비(안)이 기록되어있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인바디측정기 관련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예산부서 검토의견을 감안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람.</p> <p>일단 저희가 민간협의회 심의자료는 이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제공 받아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p>

위원	발언
	<p>현황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것 같음. 그래서 내용들을 잠깐 보시고 분과장님이나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안전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p> <p>국장님들께서 자료 사전에 받아서 보셨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p> <p>저희 분과장님들과는 회의하면서 심의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했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약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고영주 부위원장님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만약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올해가 2년차이기 때문에 2년차가 된 소감들을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음.</p> <p>(위원들 자료 검토)</p>
고영주 부위원장	<p><b>【토 론】</b></p> <p>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회의를 사전에 거쳤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음.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청소년분과위원장이기도 함.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안전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그것이 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p> <p>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발굴된 건수도 적을뿐더러, 발굴되서 제안된 사업도 좀 불가판정을 많이 받은 편이었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인 ‘부평’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음. 저희 아이도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의에 많이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음. 아이가 처음에 갔을 때의 기대치와 운영 되었을 때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p> <p>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듭. 감사합니다.</p>
이완기 위원장	<p>다음은 작년과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면서 경험이 많아, 저희 위원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많이 제공해 주신 이수창 분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람.</p>
이수창 분과장	<p>반갑습니다. 2년이 금방 지나갔음. 자치문화 회의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이 있음. 하나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기초연금도 주고 버스비도 이제 무료로 할 것 같은 분위기임.</p>

위원	발언
이수창 분과장	<p>그런데 각 동마다 하는 자치프로그램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리고 인바디 측정기와 대화형 로봇이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좀 잘 사는 동에서 제안한 것임. 각 동네의 사정들은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정이 나쁜 동네를 조금 더 배려해서, 좀 더 순차적으로 형평성 있게 가능하면 배분했으면 함. 참여예산이 아니라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듭.</p> <p>근본적인 이야기는 사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필요할까 란 생각이 듭. 청장님께서 당선되셨던 2018년에 참여예산 토론회도 하고, 그 당시 저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도 늘리고 위원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 당시 인천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센터까지 진행했었음. 그런데 지금은 국민신문고, 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로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예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함.</p> <p>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운영하기 보다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좀 편성해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p> <p>사실 공무원 분들은 주민들의 제안 사항을 예산만 있으면 다 들어주시려고 하심. 참여예산이란 제도에 대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음.</p>
이완기 위원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함. 이 부분 관련해서 조언이나 답변해주실 국장님 계신가요?
기획 문화 국장	<p>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할 상황인 것 같음.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30년이 넘었는데 재정적인 자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구조나 체계는 변함이 없는 실정이긴 함.</p> <p>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이제 1조2천억을 상회하고 1조 3천억에 가까운 총 예산 중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왜소한 수준의..</p>

위원	발언
	<p>이 정도로 되겠냐는 말씀인 것 같음. 그러나 다소 왜소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예산제안으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제안이 발굴되어 추진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있는 것이 때문에, 업무추진 시 상대적으로 성과나 실적을 내기에 좋다고 생각 됨. 무엇보다 역량을 키우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재정적인 자율성이나 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담보한 상태라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게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음.</p> <p>저희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강제적으로 편성 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함. 이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염두해 두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음.</p>
<p>윤재균 분과장</p>	<p>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 분과장 윤재균입니다. 저도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년차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4년동안 특별히 제도적이거나 전체적인 틀은 바뀐 부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듬. 도시관리 분과장으로서 심의를 보다 보면 안전교통 사업과 도시관리 사업이 색깔이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음.</p> <p>안전교통의 어떤 사업은 도시관리에서 다뤘으면 하는 부분도 있음.</p> <p>그래서 이런 사업 구분을 할 때 조금 더 명확성을 좀 만들어 주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듬. 또한 매년 심의할 때마다 장기과제로 빠지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 해에는 논의가 거의 없음. 때문에 장기과제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기수가 발생하더라도 장기과제는 심의에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함.</p> <p>또한, 마을 주민들한테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 참여예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함.</p> <p>또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쉽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동 행정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p>

위원	발언
	같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동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함. 다양한 사업이 올라와서 더 많은 내용 중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함.
이완기 분과장	도시관리와 교통안전분과의 사업 명확성은 회의 때마다 나왔던 안건이고, 5개분과의 좀 균형 배분을 고려한다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장기과제 논의는 분과장들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음. 그럼 전체 총괄을 해주신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음.
자치 행정 국장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부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하니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들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이 지출을 못따라 감. 수입이 그러다 보니깐 반영률이 떨어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못하게 되고, 장기과제 부분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가다가 사라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기 분과장	그럼 복지국장님, 저희가 알아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안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복지 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의 복지국에서는 다수의 주민참여예산들이 제안이 된 것 같음. 그래도 없는 예산 가운데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즉시, 수정 반영 관련해서 5건 정도 반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부평구가 결혼이주여성부터 해서 다문화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1위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시에서 20% 가까이 이상 차지하고 있음. 부평1동 및 부평4동, 5동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음.
이완기 분과장	감사합니다.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 그나마 이번에는 경제환경분과가 좀 반영된게 있어서 다행스러움.
경제 환경 국장	내용을 좀 보니깐 청년업무, 청년일자리라던지, 청년 전월세 관련 제안 등이 많이 들어왔구요, 또 자원순환 쪽에도 많이 제안이 되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환경 분야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위원	발언
	<p>제안되었는데 법적으로 안 되다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시피 하니깐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쓰레기통 설치를 해달라는 사업의 경우에는 폐기물법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안되는 사업인데, 좀 아쉬운 것은 쓰레기통만 설치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과 주민자치회와 연결이 돼서 어떤 시범거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던가 하는 사업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음. 무조건 관에다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도 해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음. 많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이완기 위원장	<p>시범 거리는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p>
경제 환경 국장	<p>내용을 보면 구에서 무조건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청보다는 학교와 주민자치회가 연계해서 아이들이 휴지통에 쓰레기를 넣는 그런 과정, 그리고 쓰레기통이 차면 주민자치회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안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좀 했음.</p>
이완기 위원장	<p>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이 가장 많았던 안전교통과 도시관리국장님.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p>
안전 교통 국장	<p>안전교통국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010년도인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초기에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될 까라는 염려가 되었었는데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깐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거를 것은 거르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었음. 사업을 보면 안전교통쪽이 제일 많고 또 놀랐던 게 우리 부서에서 몰랐던 사업들도 많이 제안해주셨음.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주시는 것은 좀 지양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 그리고 안전교통과 도시관리분과가 사업이 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조직 운영을 토대로 한 것 같음. 사실 안전교통국이 사업제안 건수가 많음. 이번에 사업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지만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해 봐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보는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고. 우선순위라던지 중복여부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더 기준을 만들어 보기도 했음. 어쨌든 15년 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많이 발전해 왔고 정착되어 왔다고 생각함. 이상입니다.</p>

위원	발언
이완기 위원장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도시 관리 국장	도시관리국도 사업제안이 많음. 도시관리 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고 최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음. 못보던 사업도 있었고, 장기적인 제안도 있었음. 이러한 부분은 연차별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기 위원장	예산 준비해주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운영 될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기획 예산 과장	올해 두 번째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사실 부평구의 재정여건에 대해 어렵다고 얘기드리기도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 규모가 좀 줄기는 했지만 절차상이나 형식상으로 작년에 비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음. 올해 특히 자치행정과와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가 사전 협의나 검토 과정에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기 위원장	그럼, 예산팀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저희가 알만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얘기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예산팀에 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검토했는데, 최대한 예산 반영하려고 정말 검토 열심히 했고 최대한 반영했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기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네, 그럼 이수창 분과장님.
이수창 분과장	장수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통학로 가는 길에 쓰레기통 설치하고 교육하는 것..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좀 분리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싶음. 부평구에 공통적으로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던지 다문화가정이라던지 이런 사업들은 부평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각 동에 필요한 것은 각 동 자치회에 참여예산을 줘서 각자 알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평구 시대에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대화의 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음.

위원	발언
고영주 부위원장	<p>대화의 장 관련해서 사실 각 동 주민자치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부분... 설치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니깐 그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p>
이완기 위원장	<p>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b>【토론 종료】</b>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p> <p><b>【심의안건 의결】</b> 심의 안건인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76건은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관협의회 의결 사항은 향후 예산 부서에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음.</p>
사회자	<p>네. 이것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마치겠음. 감사합니다.</p>